



濁流清論

제59호 2020년 5월 19일(화)

발행인: 김 상 배 / 편집: 편집위원회

< 알려 드립니다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공식 이메일(ajoufaculty@ajou.ac.kr)로 보내주십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원격 수업에 대한 단상

원격 강의에서 전에 없던 방식으로 학생과 교류하기

소프트웨어학과 강 경 란

이번 학기에 코로나19로 계획에도 없던 원격 강의를 하면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할 수 없었던 학생들과의 교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수자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사례라서 타 교수님들께 권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컴퓨터네트워크라는 과목입니다.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더 말씀드리면 인터넷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지 배웁니다. 웹 서비스, p2p 파일 공유, 이메일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험 실습보다는 이론 강의가 주를 이루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원격 강의 도입에 있어서 거부감이 크지 않았습니니다.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에도 대부분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혹여 중요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점점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대답에 대해 피드백하는 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말이 빨라서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에 대비해서 자동녹화 강의실에서 강의를 늘 녹화해 게시해 왔습니다. 그런 덕분에 강의를 녹화해서 학생들이 이를 시청하고 학습하게 하는 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원격 강의가 결정되고 난 후, 강의 운영 방식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론 강의가 중심이었던 과목이므로 강의 시간을 꼭 채운 분량의 동영상상을 제작하고 동영상 시청에 대해 확인하는 간단한 퀴즈를 출제해서 수강 여부를 확인하는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 차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1
- 원격 수업에 대한 단상	
- 교수회 온라인 수업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
특집	7
신임교원 소개	
소통과 담론	12
의과대학 임상교수 노동조합	
교수들의 건강칼럼	15
중년 여성의 배뇨곤란	
소식	16
- 2019학년도 교수회 정기총회 서면보고	
- 아주대학교 학칙 및 교수회 규칙 개정 보고	

첫 주 동영상 녹화분을 게시하고 퀴즈를 게시했습니다. 첫 녹화분이 강의의 목적, 진행 계획 등을 담은 것이었어서, 퀴즈는 강의 목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처음 퀴즈 출제 시에는 학생들의 답안에 대해 피드백을 해야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퀴즈의 답으로 작성한 학습 목표를 보니 자연스럽게 응원의 말을 적어주고 싶어서 피드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두 개 분반을 맡았으므로, 하나의 동영상으로 두 개 분반의 학생들이 시청하면, 한 개 분반의 수업 시간이 남으니까 이 시간을 활용해서 퀴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자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학생들도 아마 교수의 피드백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답을 작성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매 강의마다 강의의 핵심 주제에 대해 확인하는 퀴즈 문제를 제출하고 작성한 답안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 적어 주었더니 학생들 역시 성실하게 답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총 수강생이 120명을 넘어가니까 1분씩만 소요해도 2시간 이상 걸리는 활동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활동이지만, 강의 개시 후 2주 만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학생들의 퀴즈와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4주 후에 강의 난이도와 속도, 학습 분량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여기서도 출석 확인 퀴즈와 피드백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과제가 아니어서 좋고, 핵심 주제를 짚어서 문제를 내 주니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 좋고, 잘못 이해한 것을 짚어주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종강할 때까지 이러한 활동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눈을 맞추면서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서, 그리고 수업 종료 후 줄을 서서 묻는 학생들에게 답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오프라인 강의의 그런 활동을 온라인 강의에서는 출석 확인 퀴즈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제가 질문하는 학생, 그리고, 찾아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이해도에 대한 점검이 되었는데, 현재의 방식은 수강생 전체에 대해 점검이 되고 교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격 강의라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시작했는데, 학생 개개인에게는 오히려 오프라인 강의보다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22명의 수강생이 모두 성실하게 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그리고 점검 받기 위해 성실하게 답을 작성합니다. 답을 작성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질문으로 적어 놓기도 합니다. 제가 적어준 피드백을 읽고 따로 답을 작성해서 이메일로 확인을 요청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원격 강의를 하면서 아주대학교에는 공부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입학했고, 그 학생들을 조금만 지지해 주면 더 열심히 학업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학기, 코로나19가 아니었다라면 늘 하던 대로 의 방식으로 교육했을 것이고 온라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텐데, 코로나19 덕분에 새로운 교육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기가 끝나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평가해야 하겠지만, 학기 중간에 도달하고 현 상황까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성공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드백을 모두 마치는 데에는 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동참하시라고 권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학생과의 교류 방법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시도하고 있는 방법 외에도 시간 제약 없이 공간 제약 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주되게 등장하는 키워드가 교육 방법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 경험해 본 바로는, 이론 중심의 과목은 동영상 강의와 온라인 피드백을 겸하여 간다면 오프라인 강의에서 할 수 없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오프라인 강의에 비해 피드백에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가므로 이런 노력에 대한 충분한 인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교수님들 모두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직도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교육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만으로 가능한 교육 방법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창의적인 교육 방법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지난 6주간의 비대면 원격 수업 생존기

소프트웨어학과 윤 대 군

기약 없는 비대면 원격 수업이 계속되고 있다. 3월 16일 개강이 눈앞에 다가오자 부랴부랴 학교에서 배포한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또 비슷한 상황의 타 대학 후배교수를 쫓아 웹캠도 구매하는 등 나름 준비한답시고 분주하게 첫 동영상상을 만들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6주가 훌쩍 지났다. 아주아주 오래 전 취미삼아 동영상 편집을 했던 기억을 더듬어 내 강의 동영상상을 멋지게 한 번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찬 포부는 첫 동영상 제작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미 카메라로 촬영한 미디어 소스를 가지고 편집하는 것과 “미디어 소스”에 내 모습과 목소리를 담는 것은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 수차례 강의 했던 내용을 학생들 앞이 아닌 웹캠과 모니터 앞에서 반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애기였다. 차라리 다른 분한테 촬영을 부탁하고 강의실에서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인기 유튜버들에 대한 존경심이 절로 우리나라오게 된다.

어쨌든 이렇게 3개의 강의 동영상상은 캄타시아(Camtasia)라는 도구를 활용해 꾸역꾸역 만들 수 있었다. 처음 활용해 보는 프로그램이지만 강의 동영상에 잘 특화되어 있어서 사용법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 1시간여짜리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대략 5,6회 정도에 걸쳐 녹화를 하고, 이를 캄타시아 편집 프로그램에서 자르고 붙이고 하며 최종 편집본을 완성한 후 MP4와 같은 재생 가능한 동영상 포맷으로 인코딩(저장)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 동영상 제작은 여러 차례의 반복된 실수로 거의 한나절이 걸렸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도 3-4시간에 수업 하나 분량을 제작할 수 있었다.

과목의 특성상 프로젝트 위주의 실습 또한 매우 중요하기에 수강 신청한 학생들과 이메일, 블랙보드 게시판, 문자 등을 주고받으며 개강 직전까지 58명의 전 수강생을 대상으로 14개 프로젝트 팀 구성을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다. 원래는 개강 첫 날 실습시간에 팀 구성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팀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이렇게 모임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개강 전 어떻게 해서든 100% 팀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으며, 가끔은 직접 통화도 해 가며 팀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일이 사실 이번 온라인 개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다.

팀 실습은 구글밋(Google Meet)을 활용하기로 했다. 우리학교가 구글 G스 스위트(G-Suite)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새 인기가 많은 줌(Zoom) 대신 구글밋을 선택했다. 물론 구글이라서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만일 우리학교에서 정식으로 줌 라이선스를 구매했었다면 아마도 선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실제로 외부 미팅에서 줌을 많이 써보았고, 외부 특강을 줌으로 해보니 확실히 줌이 편리하긴 했다. 마치 고급 뷔페에서 파는 초밥(구글밋)과 전문 일식집에서 파는 초밥(줌)과의 차이 같은 느낌? 어쨌든 첫 실습시간 시작 전에 블랙보드 공지 사항과 개별 이메일로 각 팀별 구글밋 코드를 알려주었다. 한 학기 동안 각 팀이 온라인에서 모이는 공간이다. 담당 교수로서 나는 정규 실습시간 중에 각 팀을 방문하며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지도한다. 담당 조교 역시 매 주 각 팀별 최소한 두 번씩 방문하여 출석을 체크하고,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가이드 해준다. 주당 약 5-6시간을 이렇게 각 팀과 온라인으로 씨름하고 있다.

4월 24일 현재 12번에 걸쳐 30여 시간 동안 각 팀별로는 최소 7~10회 온라인 미팅을 진행했다. 실제로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담당교수 입장에선 훨씬 빠센 실습인 셈이다. 조교와 담당교수가 동시에 각기 다른 팀 미팅을 진행하고, 간혹 예고 없이 불쑥 팀을 방문하기 때문에, 정규 실습시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자기 팀 미팅에 참석해 있어야 한다. 각 팀 학생들은 모여 있기도 하고, 혹은 각각 떨어져 있기도 한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 가급적 학생들도 모두 떨어져 있는 것을 권장했으나, 프로젝트 기획과 설계를 하는 초기 단계에 서로 떨어져

일하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이라 각 팀별 모여서 작업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어쨌든 우려했던 실습은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권장하는 지침에 따라 4번째 강의부터는 칼투라(Kaltura)를 활용한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했다. 처음 수업 시작하기 전 학생들의 경험부터 미리 파악해 보기 위해 교수학습센터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칼투라 강좌에 참석했던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외부 특강 시 줌도 써 보았지만, 온라인 강의에 좀 더 특화된 칼투라도 나름 장점이 있다. 교수자 입장에서 각 학생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강화되어 있고, 특히 퀴즈 출제와 같은 것을 활용하여 온라인 강의에 학생들이 좀 더 집중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업 중간 중간에 간단한 퀴즈를 제출하면 학생들이 수업에서 한눈 팔 여지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을 지정해 발표를 시킬 수도 있어서 이미 내 수업에서는 각 팀별 발표를 수차례 무난히 진행할 수 있었다.

다만, 칼투라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안정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문제로 끊어지면 재접속하여 계속 수업을 들을 수 있긴 하지만 본의 아니게 수업의 일부를 놓치게 된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것이 컴퓨터 성능이다. 특히 수업 참여자들의 활동을 제어해야 하는 교수자(오퍼레이터)의 경우, 성능이 낮은 컴퓨터를 사용하면 더딘 반응으로 인해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상적인 진행 방식은 조교가 온라인 강의 오퍼레이터를 하고 강사는 강의에 집중하는 것이다. 오퍼레이터의 중요성은 학생들 발표 시간에 더욱 부각된다. 발표자들에게 돌아가며 발표 권한을 부여하면서 수업시간의 끊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척 바쁜 마우스 손놀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칼투라를 사용하는 장점 중의 하나는 자동 녹화 기능이 있다. 내 과목에서는 모든 실시간 강의를 녹화한다. 물론 실수로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 부분 녹화된 수업도 있다. 특히 학생들이 발표하고 이를 동료들이 평가해야 하는 수업에서 간혹 네트워크 문제로 실시간 발표를 듣지 못한 학생이 나중에 녹화된 발표를 보고 나서 피드백을 주는

경우도 있다. 내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안정적인 네트워크와 어느 정도 성능이 뒷받침 되는 컴퓨터 환경만 갖춰지면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녹화 동영상 강의보다는 학생, 교수 모두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교의 역할 그리고 교수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미 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해 콘텐츠를 흡수하는데 익숙해 있지만, 교수들은 상대적으로 온라인에 효과적인 콘텐츠를 만들기엔 역량이 부족하다. 이번에 강의 동영상을 만들어 보니, 코세라(Coursera)나 유데미(Udemy) 같은 서비스에 만들어져 있는 동영상 강의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기초적인 지식은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교육 또는 해당 전공분야에서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 진정한 “교수”와 “대학”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이번에 생성된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어떻게 앞으로 학교에서는 잘 활용 할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태스크포스라도 만들어 이번 기회에 대학 교육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교수회 온라인 수업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수회에서는 2020년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아주대학교 전임교원(정년트랙)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공문으로 4월 24일 교무팀으로 제출하였으며, 전체 교수님에게도 전자우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조사항목은 크게 강의, 실험 수업, 시험 및 성적평가 세 분야이며 각 항목별로 드러난 문제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학교에 바라는 사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강의

1.1. 드러난 문제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	1.2. 해결 방안	1.3. 학교에 바라는 사항
(1) 기술적인 문제 - 아주BB 불안정성 - 학생 컴퓨터 사양 부족 - 교수 개별 녹화 장비 부족 -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미비 - 강의영상 업로드 시간 소비	다양한 차원의 인프라 구축	- 네트워크 확장 - 학생 컴퓨터 환경 조사 - 녹화 장비 지원 - 소프트웨어 지원
(2) 학습성과 - 학생들 학습상황 모니터링 불가 - 출석 체크의 어려움 - 학습성과 저하	- 쌍방향 교육 환경 조성/ 블렌디드 러닝 허용 - 학기 중 적절한 형태의 시험 허용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에 대한 학교의 방침과 운영지침 필요
(3) 수업 운영 - 판서의 어려움 - 수업부담 과중 (촬영, 편집, 업로드, 온라인 과제 채점, 이메일 질문 답하기 등) - 과목별로 다른 수업운영으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 - 발표/프로젝트 형태 수업운영의 어려움 - 강의자료/강의노트 동시 사용의 어려움	- 블렌디드 러닝 허용 - 적절한 강의 촬영 인프라	적절한 강의 촬영 인프라 지원
(4) 학교의 의사결정 - 장기적인 계획에 따르지 않은 단기적 의사결정 - 교수/학생 의견수렴이 없는 일방적 의사결정 - 매주 반복되는 진도 보고 - 저작권 문제 해결을 교수진에 미룸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어야 함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어야 함

2. 실험 수업

2.1. 드러난 문제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	2.2. 해결 방안	2.3. 학교에 바라는 사항
- 진정한 의미의 실험실습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설계 수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실험 수업 학습성과 달성 불가	1인 1조, 칸막이, 시간 분산 등의 방법으로 실험/실습/프로젝트 수업을 빨리 진행하는 방안 6, 7월에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방안	-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조기에 실험 수업을 시작하는 방안 마련 (6, 7월에 집중하여 실험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이 과부하에 걸려 학습성과를 내기 어려움) - 대응 매뉴얼에 따른 체온 측정기, 손소독제 등 구비 -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험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험 수업 방안을 찾아야 함

3. 시험 및 성적 평가

3.1. 드러난 문제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	3.2. 해결 방안	3.3. 학교에 바라는 사항
(1) 학습성과 미달성 -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얇게 되어 학습성과 달성이 어려움 - 이번 학기 학습성과 미달은 이후 학기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침	시험을 보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시험을 보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여 실천
(2) 시험 운영 - 온라인 시험의 불공정성 우려 - 시험 횟수 제한으로 인한 학습부담 증가 및 불공정한 성적 부여 가능성 - 학습성과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시험 문제의 난이도 조절이 어려움 - 시험 시기가 학기말로 집중되는 현상	- 학기 중 적절한 형태의 시험 허용 - 시험 방법의 다양화 - 시험 시기의 분산	- 소규모 시험을 위하여 소독이 이루어지고 환기가 잘 되는 강의실을 준비, 중규모 시험을 위하여 소독이 이루어지고 환기가 잘 되는 강당을 준비, 대규모 시험을 위하여 체육관 시험장이나 야외 시험장 운영 - 시험에 따른 학교의 운영지침과 인프라 지원 필요 -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다양한 평가방법 자료 작성하여 배포
(3) 성적 평가의 공정성 - 시험 횟수 제한으로 인한 불공정한 성적 부여 가능성 -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 학기 중 적절한 형태의 시험 허용 - 시험 방법의 다양화 - 시험 시기의 분산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에 대한 학교의 방침과 운영지침 필요

특집

신임교원 소개(가나다순)

화학과 곽 원 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아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곽원진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이슈도 있어 찾아 뵙고 인사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탁류청론의 지면을 통해 선임 교수님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8년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좋은 기회를 잡아 이번 3월부터 아주대학교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주 연구 분야는 차세대 리튬 이차전지 중 하나인 리튬 산소 전지로 유기산화환원 첨가제, 다공성 촉매 전극, 금속 음극 표면 보호막, 일중항 산소 기반 열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박사 후 연구원 기간 중, 전해질 소재의 재조합에 대한 연구 및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차세대 금속 전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현재 수소연료전지 분야로의 연구 주제 확장까지 준비 중입니다.

아직은 낯선 자리라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아주대학교의 일원으로서 연구와 교육 모두 소홀히 하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기능성 소재, 시뮬레이션 및 계산, 실시간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선배 교수님들과 협업을 진행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학과 신경과학교실 김 태 준

안녕하세요.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신임교원 김태준입니다. 신경과의 세부 전공 중 뇌전증, 수면질환, 뇌염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작년 12월부터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특임교원으로 근무하였고 이번 2020학년도에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아주대학교의 일원이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신경계의 생체신호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뇌파 신호를 머신 러닝으로 분석하는 연구로 뇌전증 환자의 발작 뇌파, 치매 환자의 뇌파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이전에 물리학을 전공하고 프로그래밍 업무를 했던 경험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와 함께 중환자실 생체신호를 이용한 연구도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에서 교육, 연구, 진료를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는 연구에 대한 열의가 넘칠 뿐만 아니라 병원이 본교에 있어 학생들의 젊고 진취적인 기운을 받게 되어 저도 업무를 더욱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발전시켜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참신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비즈니스학과 박 민 재

이번 학기부터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e-business 학과에 함께 하게 된 박민재라고 합니다.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좋은 곳의 일원이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학부를 아주대 e-business 학과를 졸업했고 박사과정은 카이스트에서 기술경영이라는 전공으로 졸업했습니다. 모교로 돌아오게 돼, 많은 책임감과 한편으로는 간절히 마

음을 갖게 됩니다. 박사 졸업 후에는 국내외에서 Post-doc 과정을 거쳤고 2016년부터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라는 경영학 중심의 대학원에서 교수로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해 있는 알토대학교의 MBA 과정의 Academic Director로 활동하면서 국내외 기업 종사자들의 MBA 교육과 과정 운영을 맡았습니다. 특히, 알토대와 글로벌 학위 과정 운영을 하면서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국제협력에 대해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고 북유럽의 Start-up 문화와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 주요 연구 주제는 MIS 분야와 Business Analytics 분야입니다.

무엇보다 책임감을 갖고 역할에 맞는 연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대와 제가 속한 학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교수로서 학교에 활력을 불어 넣고 위치에 맞는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학생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즐겁게 소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가가기 어려운 교수가 아니라 언제든지 고민을 터 놓고 이야기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아주대 학생 분들은 매사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최선이 헛되지 않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공학과 박 성 준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3월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과 신입교원 박성준입니다. 탁류청론의 지면을 통해 선임 교수님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0년 아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후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2016). 이후에 일본의 이화학연구소(RIKEN)와 동경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마치고(2018),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2년 동안 연구 업무 이후 10년 만에 진정한 “아주가족”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해외국가연구소/대기업연구소의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세상을 견인할 수 있는 멋진 “아주인”을 양성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의 주 연구분야는 고품질의 유연전자 소재 및 소자(Soft Electronics and Materials)를 중심으로 웨어러블 센서에 관한 탐구를 통해 실시간 헬스케어 및 진단 센서 개발 연구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융합 연구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즐거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선두에 계신 교수님들의 고견을 새겨 듣고, 즐겁게 연구를 수행하여 학교와 학생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두근거리는 이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선순환을 위해 조화롭게 적응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학부대학 안 지 연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에 임용된 안지연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동양화와 심리학을 전공하고 협동과정 미술교육전공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3년간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학생들의 전공, 진로와 관련한 교과/비교과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2년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및 평가에 관한 기초·정책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학부과정에서 동양화와 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을 성격과 정서 연구실에서 보내며 미술 심리 및 미술 교육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감상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미술 감상의 양상과 관련 변인을 밝히는 미술 심리 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술 표현 및 감상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다양한 미술 교육 방법에 대해 이론적·경험적·실천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학생들과 함께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면서 학습자 중심 교육, 융합 교육의 연구하고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융합 교육, 역량 기반 교육, 지능정보사회 대비 교육 등의 주제에 관한 기초·정책 연구들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산학부대학에서 예술을 통해 학생들을 이해하고 관찰하며 학생들이 예술과 연결된 삶과 삶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리학과 윤 중 희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봄학기 물리학과 신입교원으로 임용된 윤중희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례 없는 사태로 인해 직접 찾아 뵙기 어려운데, 이렇게 탁류청론의 지면을 통해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캐번디시 연구소(Cavendish laboratory) 소속으로 박사 후 과정 연구를 수행 했습니다.

저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의광학 기술 개발을 연구합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캐번디시 연구소 및 영국 암센터(Cancer Research UK) 소속으로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암의 조기 진단에 응용할 수 있는 초분광 내시경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측정된 영상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물리학과에서도 광학, 생명과학, 전산을 아우르는 융합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광학 기술이 연구실 수준에서 개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기초과학 연구 수준이 높고 훌륭한 병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실제 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암의 조기진단 연구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 관련 연구도 해볼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하는 교수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창한 봄날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아주대학교 구성원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에서 여러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멋진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이 은 상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 행정법 교수 이은상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2001년 2월에 졸업한 후,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2004년 2월에 석사학위를, 2014년 2월에 박사학위를 각 취득하였습니다. 200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육군법무관을 마친 후 2006년부터 2020년 2월까지 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법학은 이론과 실무의 균형있는 조화가 중시되는 학문입니다. 실무가인 판사로서 이론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위논문들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더욱 학문적인 연구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좋은 인연과 기회가 되어 아주대학교에서 학자로서의 의미있는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미래 세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제 능력과 열정을 쏟아보고자 합니다. 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훌륭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해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스스로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법 연구자로서 우리나라 행정법학의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과 행정법 총론의 이론적 발전을 위해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들과 함께 아주대학교에서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된 점을 다시 한번 기쁘고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교수회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국어국문학과 장 두 영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3월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조교수 임용되어 아주 가족이 된 장두영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마치고,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로 있다가 아주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전공 분야는 한국 현대문학 현대소설 연구이며, ‘염상섭 소설의 서사 시학과 현실 인식의 관련 양상’이라는 제목으로 박사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한국 근대 소설 작가 중 작품 활동이나 문학적 측면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염상섭의 문학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구조주의적 문학 연구 방법론인 서사론을 기본으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를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관점에서 의의를 파악한 논문입니다. 학위 논문 작성 이후로는 한국 근대 문학 및 문화 전반에 걸쳐 관심을 확대·유지하고 있습니다.

50년이 채 못 되는 동안 이미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이곳 아주대에 저의 작지만 진심을 담은 노력을 보태고 싶습니다. 전공 연구는 물론이고 여러 선배 교수님들께 열심히 배우고,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을 개발하고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학과 신경외과학교실 조 평 구

안녕하세요.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신입교원 조평구입니다. 저는 세브란스(원주) 졸업 및 수련 후, 신촌세브병원 신경외과학교실에서 강사를 거쳐 이번에 아주대학교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옮겨 오게 되었습니다. 신경외과학 중에서도 특히 척추신경외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그 중 미세 침습수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스크의 재생 및 퇴행성 변성 통증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 타 분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협동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꿈꿔 왔던 전임교원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신입교원으로서 의과대학 및 의료원의 구성원으로서 교육, 연구, 진료의 삼박자를 어떻게 조화롭게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 앞서 이러한 길을 개척하셨던 여러 교수님들께 가르침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아주대학교에서 제게 주신 기회가 결과나 권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자, 저와 아주대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최 준 원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에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최준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교수님들을 뵙고 인사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탁류청론의 지면을 통하여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부 학사 졸업 후, 미국 MIT 화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UC Berkeley와 Stanford University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한 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2020년 2월까지 2년 반 정도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저는 MIT와 Caltech에서 박사과정 동안 전이금속 촉매를 이용한 비대칭 짝지음 반응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유기금속 촉매를 이용한 다양한 유기반응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UC Berkeley와 Stanford University에 머무는 동안 유기화학적 연구 경험을 생명현상 이해에 적용해보고자 하였고, 단백질의 당화 연구에 필요한 신규 화학생물학적 방법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암세포의 인산화 저해제를 이용한 항암제 개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유기화학 분야 및 화학생물학 분야의 경험을 살려 생명현상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론 개발과 나아가 질병 치료제 개발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대, 의대, 약대가 같이 있는 아주대학교의 환경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동료 교수님들과 즐겁고 의미 있는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만의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6주가 지났습니다. 처음 해보는 강의인지라 수업마다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지만, 학생들과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제가 느끼는 연구의 즐거움을 학생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의학과 피부과학교실 최 지 웅

안녕하십니까? 2020년 봄학기부터 의학과 피부과학교실 조교수로 임용된 최지웅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에서 수련을 마친 후, 충북 단양군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3년간의 군복무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전임의사를 거쳐 2017년 봄학기부터 아주대학교병원 진료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학위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에서 석·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인공피부를 이용하여 성체간엽줄기세포가 창상회복과정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연구한 바 있습니다.

제가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는 의료 빅데이터 분석과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것이며, 저의 주 진료분야인 피부암(피부외과)과 모발질환(탈모)의 역학과 위험인자에 대해 의료 빅데이터를 접목시켜 이해하고, 이들 질환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과 함께 연계하여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아주대학교의 교원으로서, 여러 선배 교수님들께서 걸어오신 학문의 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 스스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함을 물론, 우리 학교가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학공학과 황 중 국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1일자로 화학공학과 조교수에 임용된 황중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포스텍 화학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독일 Max Planck Institute of Colloids and Interfaces와 네덜란드 Utrecht university에서 박사 후 연구원 경력을 쌓았습니다.

저는 구조, 형상 및 조성이 정밀제어된 나노다공성 에너지 소재(탄소, 세라믹, 복합체, 금속 산화물, metal-organic framework) 합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성한 소재는 에너지 저장/전환 장치의 전극재 및 열화학 촉매로 적용하였습니다. 저는 에너지 소재합성과 소자 분야 모두에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응용분야에 최적화된 맞춤형 나노소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대 내부의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과 공동연구를 하기에 용이합니다.

아주대는 대학원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공동연구를 통해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대는 실사구시 이념하에 실용적인 학풍이 강한 대학입니다. 저는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실용화가 가능한 에너지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데 큰 관심이 있어왔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장기 계획과 학풍을 가지고 있는 아주대에서 독립적인 연구자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에너지 소재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자로서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화학공학과 연구 및 대학원 활성화, 국책 연구 과제 수주 등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젊은 신입교원으로서 학생들에게 좀더 친밀하게 다가가 학생상담, 진로 지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담론

의과대학 임상교수 노동조합

의학과 정신건강의학교실 노재성

기업이 설립하고 지원하는 재단이 아니면 대학 부속 병원은 재단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여 대학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학 재단은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던 영안실이나 병원 내 상가를 재단이 직접 운영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대학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대학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운영 방식은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이 의료 이익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된다. 의과대학의 교수 중 진료를 담당하는 임상교수는 의과대학생을 교육하고 연구도 하지만 실제 업무는 환자진료가 주 업무이며 이 점은 교수가 아닌 대형병원의 의사가 근무하는 형태와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규모팽창과 매출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매출을 직접 일으키는 임상교수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기관도 예외는 아니어서 과거 수년간 의료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의료 수익과 매출에 대한 선언을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더 이상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의료원 안에서 의대 교수는 의료원 정책결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다른 직능에 비하여 수월했다. 그래서 의료원의 다른 직능의 구성원도 의대 임상교수를 경영진의 일부로 여겼으며 의대 교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 왔다. 교수가 의료원에 의견을 제시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회를 통해서다. 의료원장도 의대 교수이고 교수의 리더 역할을 자임하는 지라 교수회의 의견을 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원의 경영의 목표가 이익 증대에 맞추어 지고 의료원장의 역할이 리더라기보다 병원의 최고경영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의대 교수의 의견을 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다.

이제 교수회는 의료원 운영진에 의사소통을 요구할 방안이 없다. 몇 번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교수회가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의료원은 이에 대하여 해명하기보다 아예

규정을 변경해 버리곤 했다. 이는 교수회 혹은 교수들과의 논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어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진이 의무감을 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은 현행법으로는 노동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단초가 되어 의료원에서는 2018년 12월 임상교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인사문제가 단초가 되기는 했지만 점점 병원 수익에 대한 압박은 높아지고 병원의 운영에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워져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료 환경과 근무조건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임상교수의 피고용인으로서의 현실적 문제의식이 추가되었다. 진료환경이 교수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위협해지고 있으므로 진료환경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 주체적 참여를 요구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교섭단위분리신청과 그에 따른 행정소송, 진료교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청원, 전임교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소송, 의료원의 임금포기각서 징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이 있었거나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과정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교수회 차원에서 진행해 왔다. 처음 의대 교수 노동조합을 결성할 때는 임상교수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형태는 대학교수라기보다 병원의 의사로서의 업무가 주되므로 교원노조법보다는 일반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이미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기는 하지만 의대 교수도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 4월 1일까지는 교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교원노조법의 해당조항이 지난 4월 1일을 기해 무효가 되어 대학교수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 임상교수의 병원에서의 업무는 일반 노조법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교수와 노동조합이란 단어가 같이 놓이기에 생소

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대학교수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읽어 보면 아마도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동의할 수 있으리라. 결정례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학교원의 임용제도가 전반적으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보호하기 보다는 열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천해 왔다. 2002년부터는 기간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 임용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그러므로) 대학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단결권 보장이 필요하다. (중략) 대학교원은 교수협의회나 대학 평의회회를 통하여 대학행정 학사 등에 관해 심의하고 대학자치의 주체로서 어느 정도 대학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으나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 측을 상대로 교섭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를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교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가능해 졌으니 이를 미룰 이유를 찾기 어려울 듯하다.

우리 의료원의 연가보상비 사건은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후의 사안들이 여기서 시작되지만 이미 교수회 성명서 등을 통해 교수님들께 알려졌으므로 간략히 설명하겠다.

연가보상은 정해진 휴가를 가지 않으면 그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한다는 기본권의 문제이다. 그런데 대학교수는 방학이 있으므로 연가보상을 하지 않아 왔고 의대 임상교수도 교수라는 이유로 연가보상이 없었다. 그런데 의대 교수는 학생 방학과 상관없이 병원진료를 계속하므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일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오랫동안 의료원이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너무 명백한 사안이고 복잡할 것이 없어서 공식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결정을 하고 법적인 준비를 하였다. 먼저 연가보상비를 지급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몇몇 교수들이 연서명하여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직급이 높지 않은 교수들을 보직교수들이 불러 ‘내용을 알고 서명하였느냐’, ‘이 문제는 소송을 갈 거다, 소송 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일을 안 하실 분인 줄

알았다’, ‘위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등의 위협적인 면담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수에 대한 의료원의 인식이 너무 천박하다는 것에 놀랐고 스스로도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임상교수는 전임교원과 전임교원이 아닌 진료교수로 나뉜다. 이중 진료교수는 특임교원이며 특임교원은 법적으로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 문제는 두 개 트랙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특임교원은 전임교원이 되고자 준비하고 대기 중인 젊은 후배와 제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특임교원은 법적으로 교원이 아니니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법적인 다툼을 할 요인이 아예 없었으며 특히 교섭단위 분리 신청과정에서 진료교수가 일반 노동법의 적용대상이라고 서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별 쟁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비용이 들지 않고 결정기간이 짧은 노동부 근로감독 진정을 선택하였고 전임교원은 근로기준법과 공무원 복무규정 중 어느 법으로 지급해야 하느냐를 다룰 여지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후 놀랍게도 의료원이 진료교수들을 모아서 내과계 외과계 지원계의 세 개 그룹으로 나누고 의료원의 최상위 보직자들이 각 그룹에 두 명씩 들어가 연가보상비를 포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질 낮은 기업의 사용자가 대응하는 대표적 방안인데 우리 의료원이 이런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에 크게 실망하여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조사가 진행 중이다.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는 당연히 진료교수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의료원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이미 노동부에서 첫 번째 연가보상비 포기각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되었음에도 다시 한번 포기각서를 받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였다. 두 번째 포기각서를 받은 이유와 그 결정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현재 학교 인권센터에서 조사 중이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법조항인데 전체 의료원 구성원이 교육을 받았고 자료를 통하여 그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두 번에 걸친 포기각서 징구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도 명백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내부기관에 신고하였고 자체 조사 및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전임교원의 연가보상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민사소송이 그렇듯이 시간이 걸리지만 의료원 변호사의 주장을 읽어보면 보면 의과대학 임상교수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기대한 바와는 상당히 다르며 두 차례 각서를 받을 수 있었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을 통하여 느끼는 점 중 중요한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의료원의 교수에 대한 대응이 진료교수와 전임교수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기업이 노동문제에 대응하는 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즉 우리 스스로는 교수이므로 이 기관에서의 역할이나 위상이 다른 직능의 구성원보다는 좀 우월할 것이라고 여겨 왔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수들의 의견이 의료원 운영에 반영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가 과도하게 자기애적인 기대였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두 번째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의 절차가 있으며 비교적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노동부 진정에 의해서 진료교원의 연가보상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서 문제제기 연도 이후인 2020년분도 지급되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 신고 등은 교묘한 괴롭힘인 압박 행동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의과대학의 특성상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심리적이고 실제적인 억제기제가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면 비교적 다양하고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질문은 교수 노동조합이 꼭 필요하느냐는 것이다. 교수회 수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꼭 노동조합이 필요하느냐는 것인데 노동조합의 효용성을 고려하면 조합을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앞에 쓴 것처럼 넓게는 양측에 협상의 의무를 지게 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의료원이 규정을 교수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변경하는 것이

노동조합 설립의 단초가 되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노동조합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의 일은 대학보다는 일반 기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첨언하여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과 교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 하느냐도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교수회는 교수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학칙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수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파트너로 어느 정도 무겁게 인정받느냐가 중요하다. 사실 일반기업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협의회를 육성하여 요구와 의견 취합을 창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교수회는 기대되는 역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의료원은 교수회를 그림자 취급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수회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수회가 노동조합을 분리된 조직으로 만들 이유는 없다. 외형적으로는 두 개의 조직이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노동조합이 교수회의 기구로서 역할을 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목적을 생각할 때 논의과정과 진행과정은 교수회가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미 교원노조법의 교수 단결권 금지조항이 효력이 없어졌지만 아직 전체적인 법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주시해야 한다. 바라기로는 진행 중인 행정 소송에 의해 일반노조법 적용이 결정되기를 바라지만 교원노조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본래의 목적을 추구해 나가기에 별 제한은 없을 것이다. 더하여 사립학교 교수 연합회 등 여러 교수 단체에서 교수 노동조합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 논의가 많기는 하지만 의과대학 임상교수의 직무환경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역시 지켜보고 있는 처지다. 우리 대학의 전체교수회에서 교수 노동조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그 주체는 교수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수들의
건강칼럼

중년 여성의 배뇨곤란

의학과 비뇨의학교실 추 설 호

중년 남성이 전립선비대증으로 대표되는 배뇨곤란을 많이 경험한다면 중년 여성은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이라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소변보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중년 이후가 되면 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 소변을 찔끔 지리게 되는 요실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약 40%가 요실금을 경험할 정도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며 옛날 어른들은 으레 조금씩 지리는 것은 당연히 여길 정도로 흔합니다. 재채기, 웃음, 줄넘기, 달리기와 같이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흐르는 복합성 요실금이라 하며 가장 큰 원인인 출산시의 방광하부 조직 및 골반저근의 손상으로 인한 방광의 위치 변동과 요도괄약근의 약화입니다. 이외에도 염증, 과체중, 폐경 및 노화현상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합성 요실금은 증상이 약한 경우 골반저근운동, 약물치료, 바이오피드백 등의 비수술적인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으나 증상이 중등도 이상이라면 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중부요도슬링 수술이 도입된 이후 수술방법이 매우 간단해졌고 수술 후 재발률이 10~20% 정도로 치료 효과가 좋아졌습니다.

과민성 방광도 중년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흔한 질병입니다. 소변을 못 참는 절박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대개는 빈뇨와 야간빈뇨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에서는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과민성 방광의 유병률을 조사하였는데 남자에서는 약 10% 정도가 여자에서는 14.3%가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되었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과민성 방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방광의 노화가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이 탄력성이 좋아서 장시간 소변을 참을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양도 많지만 나이가 든 방광은 탄력성을 잃고 딱딱해져서 방광의 용적이 작아지고 방광으로 가는 신경 자체도 문제가 발생해서 조그만 자극에 수축이

일어나서 절박성 등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절박요실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에서 고립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울증의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특히 과민성 방광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나이드 노인에서는 화장실을 자주 그리고 급하게 다녀오게 되면서 낙상위험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골절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과민성 방광의 치료는 행동요법 및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행동요법이란 생활습관의 변화, 방광기능의 교육, 수분 섭취의 제한, 카페인 섭취 제한, 체중감소, 변비 예방 등 간단한 방법이지만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커피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큰 경우도 많습니다. 약물치료는 이러한 행동요법과 병행 치료 시 효과가 크며 대부분 방광의 수축력을 감소시키는 항콜린성약물과 방광의 이완을 촉진시키는 베타3항진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술치료는 요실금과 동반된 경우에 요실금수술을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요실금 및 과민성 방광 등의 배뇨장애는 중년 여성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삶의 질은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행동요법 및 약물치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간단한 요실금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교수회

전 화: 031)219-1608

팩 스: 031)219-2240

E-메일: ajoufaculty@ajou.ac.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을곡관 263호

소식

교수회 소식

2019학년도 교수회 정기총회 서면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19학년도 교수회 정기총회를 서면보고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면보고 자료는 3월 13일 아주대학교 전체 전임 교수님께 전자우편으로 전달되었으며, 자료집에는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된 교수회 대의원회 회의록과 교수회가 추진한 사업 및 기타 사업, 감사보고, 의과대학 교수회 주요 활동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9학년도 교수회 추진 사업으로는 발전계획 심의 TF와 교수회 규칙 개정 TF, 그리고 총장 중간 평가 TF 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주요대학 연구년제 조사 및 교원 연구년제 규칙 개정 요청과 교수회 성명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신입 교원 환영 간담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서면보고 자료를 전달받지 못하신 교수님께서서는 교수회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전자우편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학칙 및 교수회 규칙 개정 보고

교수회에서는 교수회 규칙 개정 TF를 구성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아주대학교 학칙(제13조) 및 교수회 규칙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규칙 개정 진행 과정은 2019학년도 교수회 정기총회 서면보고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학칙 및 교수회 규칙 개정(안)은 교무회의와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번호: 211009)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의 규정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 윤호섭(편집책임),

박만규, 박성빈, 이규상, 정태선, 최영화